

| 2026-9호 (통권 28호)

# 구미 현안분석 Brief

2026. 9.

## | 목차 |

1. 인구구조 변화 및 산업구조 특성에 기반한 5극3특  
공간정책의 방향과 구미시 시사점
2.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가 구미시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

# CONTENTS

---

|                                                                                                                                          |    |
|------------------------------------------------------------------------------------------------------------------------------------------|----|
|  인구구조 변화 및 산업구조 특성에 기반한 5극3특<br>공간정책의 방향과 구미시 시사점 ..... | 4p |
|------------------------------------------------------------------------------------------------------------------------------------------|----|

|                                                                                                                             |     |
|-----------------------------------------------------------------------------------------------------------------------------|-----|
|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가<br>구미시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 | 22p |
|-----------------------------------------------------------------------------------------------------------------------------|-----|

---





# 01

---

## 인구구조 변화 및 산업구조 특성에 기반한 5극3특 공간정책의 방향과 구미시 시사점



이제야 책임연구원(thekey@geri.re.kr / 054-479-2262)

# 인구구조 변화 및 산업구조 특성에 기반한 5극3특 공간정책의 방향과 구미시 시사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이제야 책임(thekey@geri.re.kr / 054-479-2262)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우한성 책임(woo@kicox.or.kr / 070-8895-7296)

- ◆ 인구·산업 기반 분석을 통해 전국 지역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5극3특 균형발전정책 측면에서 구미시의 대응 방향을 도출
- ◆ 구미시는 첨단산업·주력 제조업 기반은 견고하나 청년·총인구가 동반 이탈하는 '산업-인구 디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짐
- ◆ 향후 제조 AX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친화적 산단·정주환경 조성, 대경권 핵심 제조·R&D 거점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초광역 연계 병행 필요

## 01 > 5극3특 균형성장 추진 전략의 구조와 의미

### 📖 정책 개요

- ✔ (범부처 종합 실행계획) 부처별 과제를 5극3특 권역의 경제·생활권 형성을 목표로 총괄 체계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 마련
- (경제권: 성장과 집중)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인재양성, 산학연 혁신거점 조성 삼각 축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 (생활권: 연결과 확산)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으로 생활 전반의 통합적 연계
- (행·재정기반 구축) 권역 단위 행정체계 구축 등 지방우대 기조 정립

📖 (정책 구조<sup>1)</sup>) 정책 키워드 기반으로 살펴보면, ①(정책중심) 권역-연계-강화, ②(성장동력) 성장엔진-거점-산업, ③(균형발전과 지원) 균형성장-예산-과제, ④(핵심매개) 인재-체계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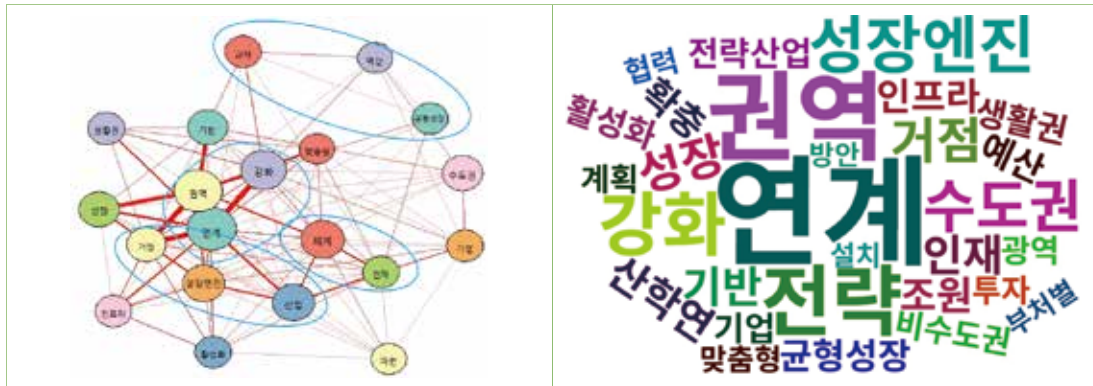
- ✔ (정책 중심: 권역-연계-강화) 권역 단위의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AX 혁신과 기존 산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
- ✔ (성장동력: 성장엔진-산업-거점) 첨단기술 기반의 권역별 메가시티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엔진 확보

1) 정책발표 자료 기반으로 텍스트마이닝(단어 네트워크)을 통해 정리하였음.

☑ (균형발전과 지원: 균형성장-예산-과제) 균형성장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예산 투입과 과제 수행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핵심 매개: 인재-체계) 권역별 성장엔진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 시설 투자를 넘어 인재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 체계 구축 필요

<5극3특 정책의 단어 네트워크 & 워드 클라우드 식별 결과>



<5극3특 추진 목표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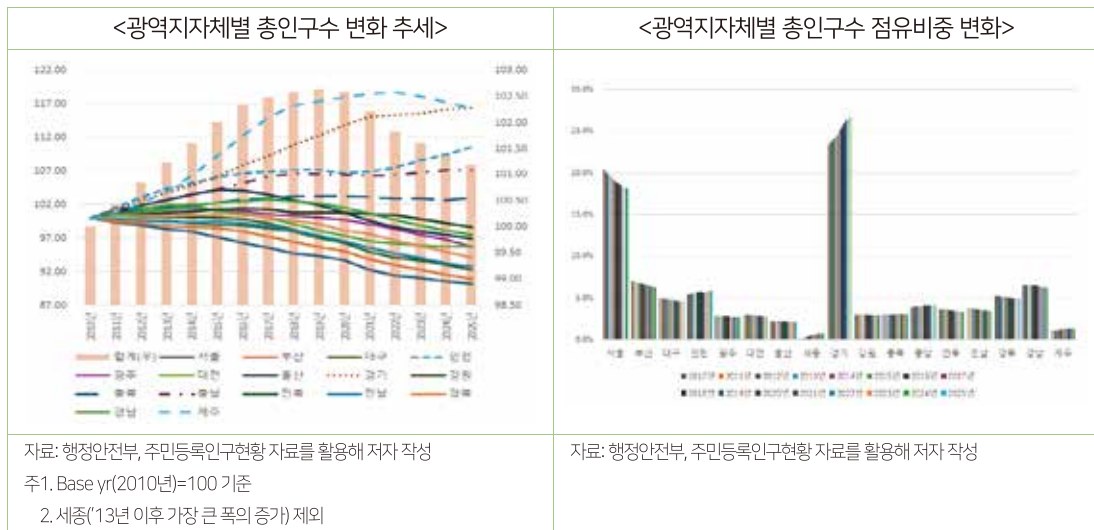
\* 출처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2025)

## 02 >> 인구구조의 상대적 변화와 지역 유형화

### ☞ 총인구 및 청년인구 시계열 변화 추이('1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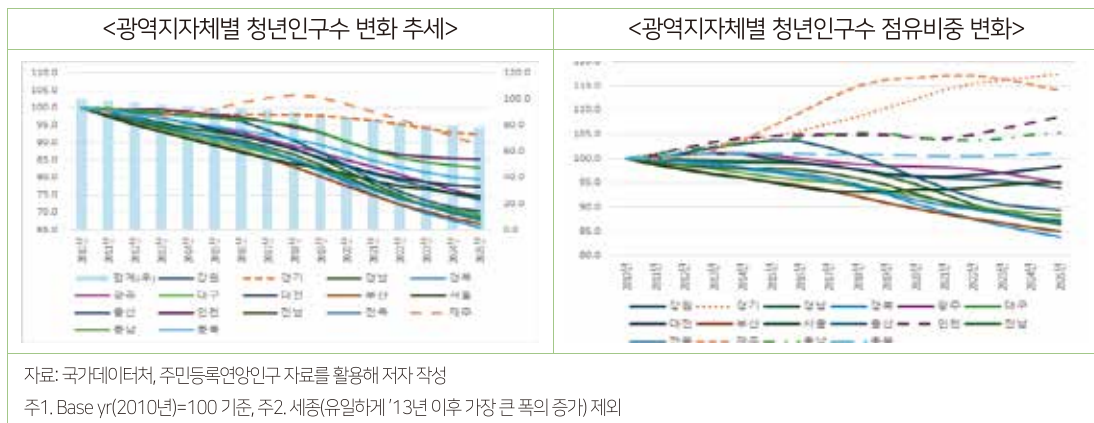
#### ☑ (총인구) 전국 총인구는 '19년 기점으로 감소세 전환

- (광역시자체 기준) 지역별 총인구의 절대적 규모 변화는 인천·경기, 충남·북의 증가와 그 외 지역은 감소 추세로 양극화 양상이 심화



#### ☑ (청년인구<sup>2)</sup>) 청년인구수는 '10년 이후 전국적으로 꾸준히 감소

- (광역시자체 기준) 경기, 제주의 경우 절대적인 청년인구수가 완만한 감소세, 반면 전국대비 청년인구 점유비중은 동기간 수도권(서울 제외), 충청권(대전 제외), 제주에서 증가세



2) 청년 연령은 청년기본법(19~34세), 청년고용사업 적용(15~34세), 일부 지자체 조례(18~39세)를 고려해 포괄적인 수준에서 만15~39세로 설정하여 산출하였음.

## ☞ 총인구 및 청년인구 점유율 변화('10~'25년)

(인구감소 일반화) 전국적 인구(청년) 감소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절대적 인구 증감은 공통적인 감소 추세에 큰 영향, 따라서 절대적 증감만으로는 지역간 변화 차이 설명의 한계

(인구구조의 상대적 변화) 전국대비 총인구·청년인구의 지역별 점유율에 주목하여, 전국적 감소 추세를 통제하고, 각 지역의 상대적 위상 변화와 인구의 공간적 재배치 양상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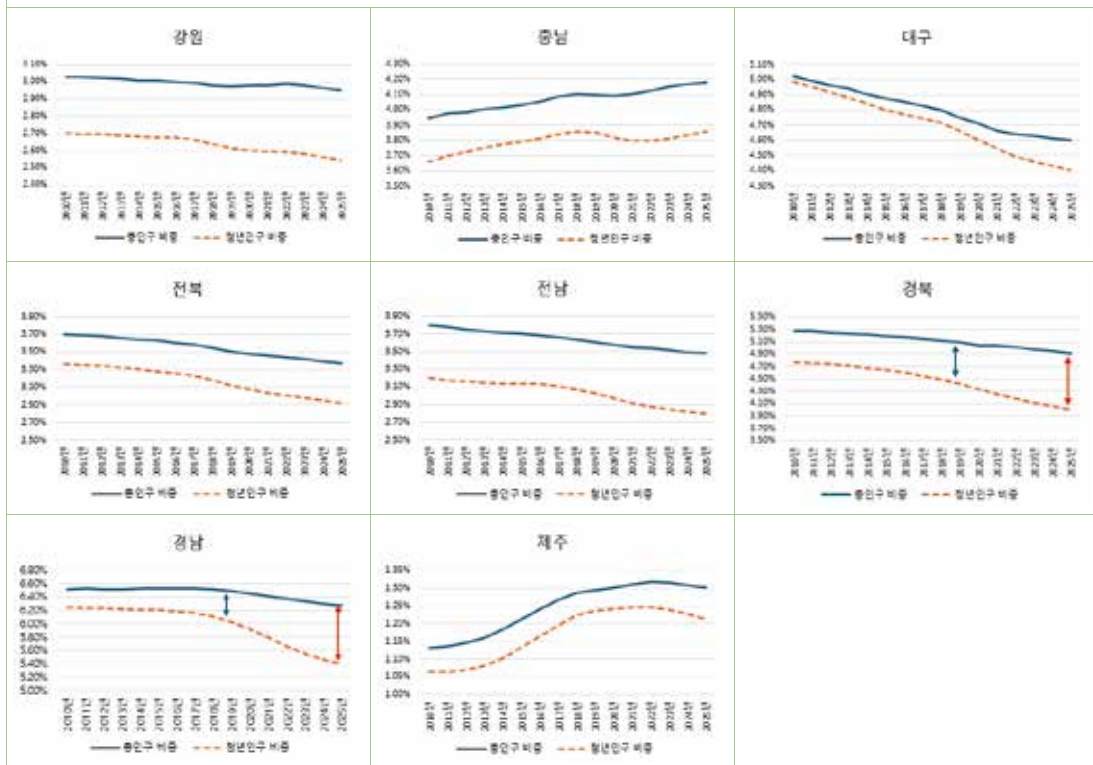
☑ (청년인구 점유율 > 총인구 점유율) 상대적으로 청년인구 점유율이 높은 지역(젊은 인구구조)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의 비수도권 일부 지역이 관찰

☑ (광역지자체별 점유율 변화) 수도권(경기, 인천), 충청권(충남)의 총인구 및 청년인구 점유율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반면,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점유율이 동반 감소세를 유지  
- 특히 대구, 부산, 경북, 경남 등에서 총인구 점유율 대비 청년인구 점유율 격차가 최근 들어 더욱 확대

<광역지자체별 총인구 & 청년인구 점유율 변화 추세: '10~'25년>



<광역지자체별 총인구 & 청년인구 점유율 변화 추세: '10~'25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연안인구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 ☞ (시군구 수준의 비교) 시군구 수준에서 총인구·청년인구 점유율 변화 수준을 바탕으로 증가 및 감소 상위 30개 지역 식별

☑ (총인구 점유율 증가) 경기 화성, 세종, 인천 서구, 경기 평택, 경기 김포 등의 순으로 총인구 점유율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충청권 제외 비수도권 중에서는 경남 양산,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성, 강원 원주, 대구 중구, 울산 북구 등이 포함

☑ (총인구 점유율 감소) 경기 부천,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 등의 수도권과 대구 달서구, 경남 창원 등의 비수도권 지역이 총인구 점유율 감소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관찰

☑ (청년인구 점유율 증가) 경기 화성·평택, 세종, 인천 서구, 경기 하남 등의 순으로 청년인구 점유율 증가 폭이 큰 것으로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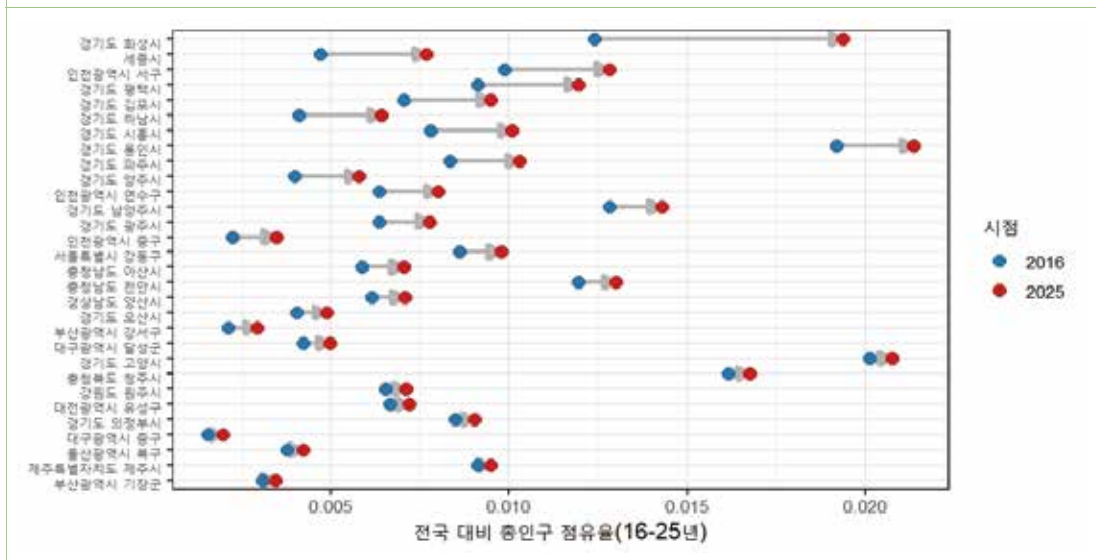
- 비수도권 중에서는 대전 유성, 충남 천안·아산·청주, 대구 중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성, 강원 원주 등도 상위권에 포함

- 주요 상위권 지자체는 총인구 및 청년인구 점유율이 동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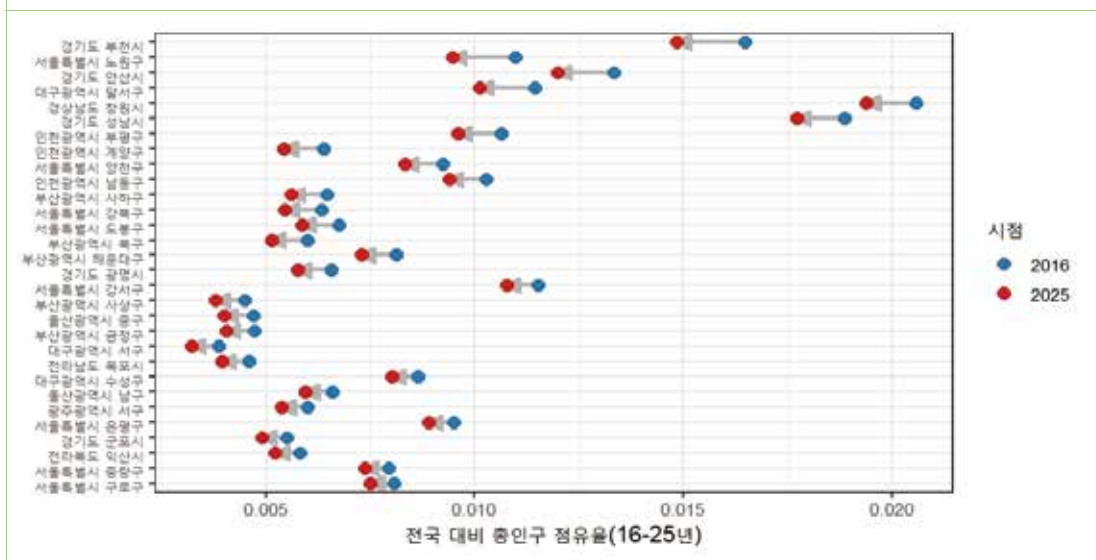
☑ (청년인구 점유율 감소) 경남 창원, 경기 부천, 대구 달서구, 경남 거제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인구 점유율 감소 폭이 가장 큼

- 구미시의 경우도 청년인구 점유율 감소 상위 지역에 포함
- 청년인구 점유율 감소 상위권 지자체는 총인구 및 청년인구 점유율이 동반 감소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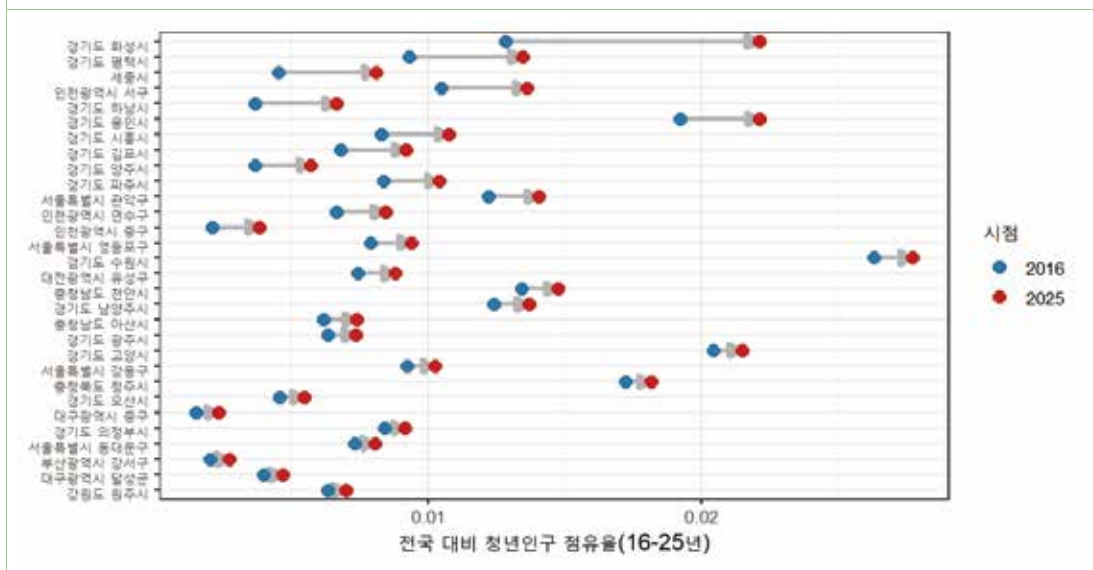
<전국 대비 총인구 점유율 증가 상위 30개 시군구: '16~'2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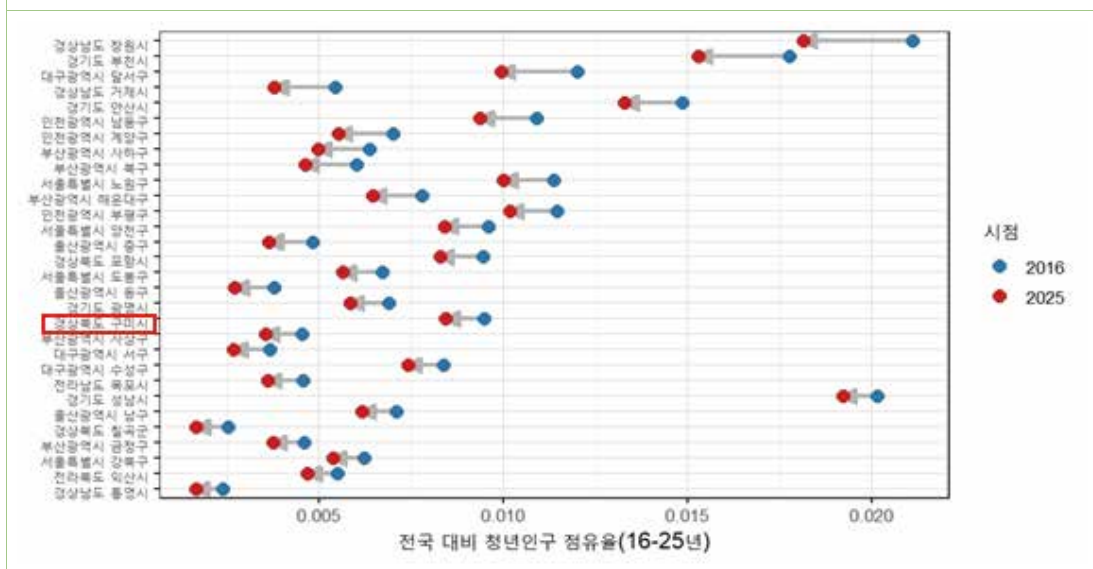
<전국 대비 총인구 점유율 감소 상위 30개 시군구: '16~'25년 기준>



<전국 대비 청년인구 점유율 증가 상위 30개 시군구: '16~'25년 기준>



<전국 대비 청년인구 점유율 감소 상위 30개 시군구: '16~'2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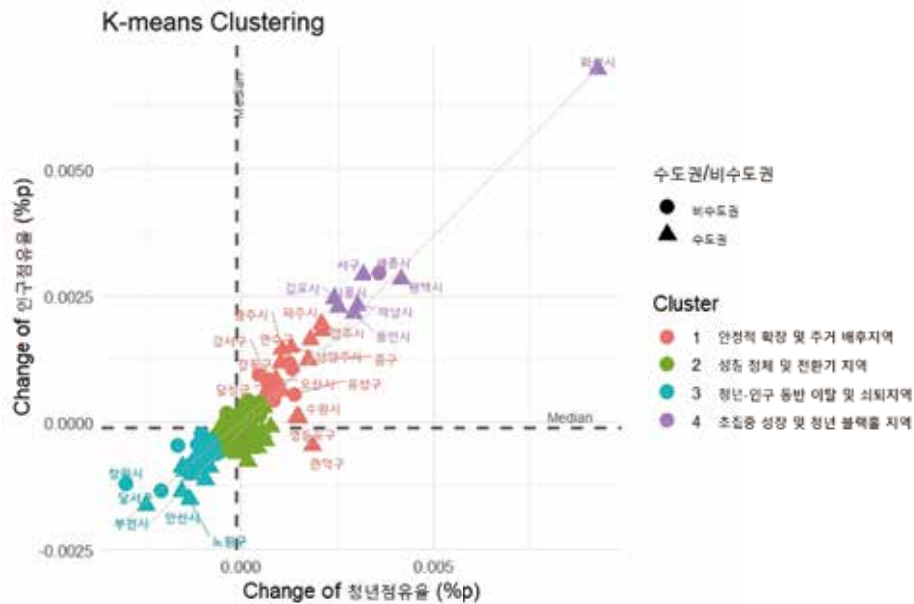


### 03 >> 총인구·청년인구 기반 지역 특성 유형화: 229개 시군구 기준

☞ (지역 특성 유형화) 전국 229개 시군구 대상의 청년인구·총인구 점유율 변화('16~'25년) 변수 기반으로 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을 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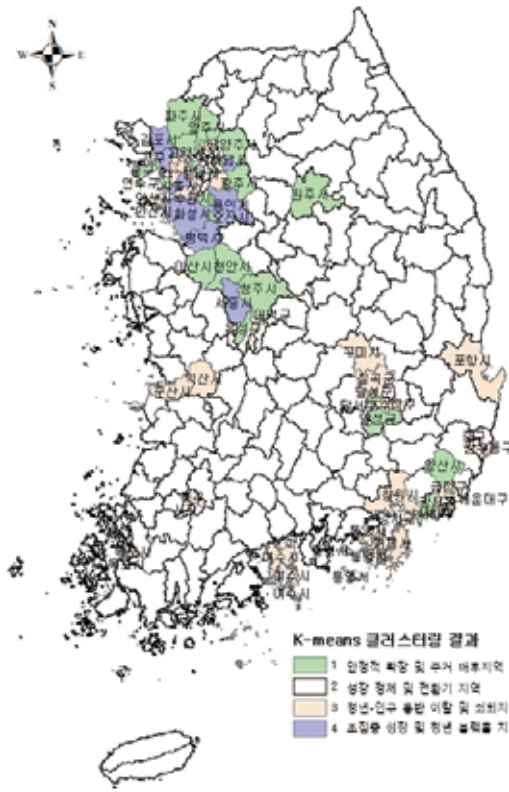
- ① 안정적 확장 및 주거 배후지역, ② 성장 정체 및 전환기 지역, ③ 청년·인구 동반 이탈 및 쇠퇴지역(구미시 해당), ④ 초집중 성장 및 청년 블랙홀 지역

< K-means 군집분석 결과 산포도: 229개 시군구 기준 >



- ☑ 청년인구 점유율 변화(x축)와 총인구 점유율 변화(y축)는 뚜렷한 우상향 선형관계를 보이고, 이는 절대적 인구 감소의 일반화 속에서 청년유입이 지역간 인구격차를 주도함을 의미

< K-means 군집분석 결과 지도화: 229개 시군구 기준 >



**Q (클러스터 공간 분포와 특성)**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잇는 공간 축 중심의 청년인구 블랙홀 현상과 수도권 일부 외곽, 남동연해안, 호남·영남 내륙 등 청년·인구 동반 이탈 및 쇠퇴 지역 분산

- ✓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구분과 무관하게 산단 기반의 제조업 집적지인 주요 산업도시(구미 등)의 청년·인구 동반 이탈 및 쇠퇴가 두드러짐
- 특히 창원, 거제, 통영, 구미, 포항, 여수, 군산 등 지방의 전통 제조업 거점들에서 청년층 이탈로 인한 위기 고조
- 경기 안산·부천, 서울 노원 등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노후화, 신도시 인구 유출로 청년과 인구가 동시에 감소하는 수도권 내 쇠퇴지역의 특징을 보임

< 총인구·청년인구 점유율 변화 기반의 지역 특성 유형화 결과: 229개 시군구 기준 >

| Cluster                     | 광역지자체(개) | 기초지자체                            |
|-----------------------------|----------|----------------------------------|
| 초집중 성장 및 청년 블랙홀 지역<br>(CL4) | 경기(6)    | 화성, 평택, 김포, 하남, 시흥, 용인           |
|                             | 인천(1)    | 서구                               |
|                             | 세종(1)    | 세종                               |
| 안정적 확장 및 주거 배후지역<br>(CL1)   | 강원(1)    | 원주                               |
|                             | 경기(8)    | 파주, 양주, 남양주, 광주, 오산, 고양, 의정부, 수원 |
|                             | 경남(1)    | 양산                               |
|                             | 대구(2)    | 달성, 중구                           |
|                             | 대전(1)    | 유성                               |
|                             | 부산(1)    | 강서                               |
|                             | 서울(3)    | 강동, 영등포, 관악                      |
|                             | 인천(2)    | 연수, 중구                           |
|                             | 충남(2)    | 아산, 천안                           |
|                             | 충북(1)    | 청주                               |
| 성장 정체 및 전환기 지역<br>(CL2)     | 강원(17)   | 춘천, 양양, 횡성 등                     |
|                             | 경기(12)   | 과천, 양평, 안성 등                     |
|                             | 경남(14)   | 김해, 산청, 의령, 거창 등                 |
|                             | 경북(19)   | 경산, 예천, 울릉, 영양 등                 |
|                             | 광주(3)    | 동구, 남구, 광산구                      |
|                             | 대구(4)    | 군위, 동구, 남구, 북구                   |
|                             | 대전(3)    | 동구, 서구, 중구                       |
|                             | 부산(10)   | 기장, 연제구, 동래, 동구 등                |
|                             | 서울(18)   | 강남, 동대문, 중구, 송파구 등               |
|                             | 울산(2)    | 북구, 울주                           |
|                             | 인천(4)    | 미추홀구, 강화, 옹진, 동구                 |
|                             | 전남(20)   | 무안, 나주, 광양, 순천 등                 |

| Cluster                     | 광역지자체(개) | 기초지자체               |
|-----------------------------|----------|---------------------|
| 성장 정체 및 전환기 지역<br>(CL2)     | 전북(12)   | 완주, 진안, 무주 등        |
|                             | 제주(2)    | 제주, 서귀포             |
|                             | 충남(13)   | 당진, 계룡, 서산, 홍성 등    |
|                             | 충북(10)   | 진천, 충주, 증평, 괴산 등    |
| 청년·인구 동반 이탈 및 쇠퇴지역<br>(CL3) | 경기(5)    | 군포, 광명, 성남, 안산, 부천  |
|                             | 경남(3)    | 통영, 거제, 창원          |
|                             | 경북(3)    | 구미, 칠곡, 포항          |
|                             | 광주(2)    | 북구, 서구              |
|                             | 대구(3)    | 수성구, 서구, 달서구        |
|                             | 대전(1)    | 대덕                  |
|                             | 부산(5)    | 금정, 사상, 해운대, 북구, 사하 |
|                             | 서울(4)    | 도봉, 강북, 양천, 노원      |
|                             | 울산(3)    | 동구, 남구, 중구          |
|                             | 인천(3)    | 남동구, 계양, 부평         |
|                             | 전남(2)    | 여수, 목포              |
|                             | 전북(2)    | 군산, 익산              |

## 04 >> 산업구조 특성 기반의 지역 유형화

### 주력제조업<sup>3)</sup>의 지역특화(LQ<sup>4)</sup>) 진단

- 시군구 수준에서 주력제조업의 상대적 비중을 입지계수로 평가하여 지역별 특화도 파악, LQ > 1이면 전국 평균보다 특화되었다고 판단(값이 클수록 특화도 증가)
- 구미시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분야 특화도가 높음

< 주력제조업별 지역특화 현황(종사자 수 기준, '24년) >

| 주력제조업 | 주요 특화지역(주요 상위 시군구)                                 | 주력제조업 | 주요 특화지역(주요 상위 시군구)                                |
|-------|----------------------------------------------------|-------|---------------------------------------------------|
| 가전    | 경남 창원, 광주 광산, 경북 김천, 전남 장성, 경기 포천, 경북 청도, 경북 칠곡 등  | 자동차   | 울산 북구, 전북 완주, 경북 경주, 충남 서산, 충남 아산, 경북 영천 등        |
| 디스플레이 | 경기 파주, 충남 아산, <b>경북 구미</b> , 경기 평택, 충남 공주, 충남 서천 등 | 정유    | 울산 울주, 충남 서산, 전남 여수, 울산 남구, 인천 서구, 충남 예산, 충북 진천 등 |

3)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상의 11개 산업으로 정의하였고, 국가데이터처의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로 분석

4)  $LQ = \frac{(L_{ij}/L_j)}{(Q_i/Q)}$ ,  $L_{ij}$  지역 i산업 종사자 수,  $L_i$  지역 총 종사자수,  $Q_i$  산업 총 종사자수,  $Q$  전국 총 종사자 수

| 주력제조업 | 주요 특화지역(주요 상위 시군구)                                        | 주력제조업  | 주요 특화지역(주요 상위 시군구)                                 |
|-------|-----------------------------------------------------------|--------|----------------------------------------------------|
| 반도체   | 경기 이천, 경기 화성, 경기 평택, 인천 중구, <b>경북 구미</b> , 경기 용인, 충남 아산 등 | 정보통신기기 | <b>경북 구미</b> , 경기 군포, 경기 오산, 인천 연수, 경기 의왕, 경북 칠곡 등 |
| 석유화학  | 전남 여수, 충남 서산, 울산 남구, 충남 청양, 충북 진천, 경북 김천, 울산 울주 등         | 조선     | 울산 동구, 전남 영암, 경남 거제, 경남 고성, 부산 영도, 경남 통영 등         |
| 섬유    | 대구 서구, 서울 중랑, 경기 포천, 경북 고령, 경북 성주, 경기 양주, 서울 동대문 등        | 철강     | 충남 당진, 전남 광양, 경북 포항, 인천 동구, 부산 강서구, 경남 함안 등        |
| 일반기계  | 경남 함안, 부산 강서구, 인천 동구, 경기 시흥, 경기 안성, 충남 아산 등               | -      | -                                                  |

## ☑ 첨단산업<sup>5)</sup>의 지역특화(LQ<sup>6)</sup>) 진단

☑ 구미시는 첨단방위, 바이오, 이차전지 분야에서 특화도가 높음

< 첨단산업별 지역특화 현황(종사자 수 기준, '24년) >

| 첨단산업      | 주요 특화지역(주요 상위 시군구)                                 | 첨단산업      | 주요 특화지역(주요 상위 시군구)                                     |
|-----------|----------------------------------------------------|-----------|--------------------------------------------------------|
| 나노        | 전남 여수, 울산 남구, 경북 영주, 울산 울주, 충북 진천, 충북 음성 등         | 첨단방위      | 충북 보은, 울산 동구, 경기 안산, 세종, <b>경북 구미</b> , 경기 시흥, 경기 군포 등 |
| 차세대 디스플레이 | 경북 영천, 경북 경주, 울산 북구, 울산 울주, 전북 완주, 충남 서산, 충남 아산 등  | 수소        | 경기 군포, 충북 진천, 대구 달성, 경기 안성, 부산 강서구, 인천 서구 등            |
| 지능형로봇     | 대구 달성, 경북 칠곡, 경기 오산, 경기 시흥, 경북 성주, 충남 아산, 경기 화성 등  | 우주항공      | 경남 사천, 충북 증평, 경기 안산, 부산 강서구, 경기 시흥, 경기 평택 등            |
| 미래 모빌리티   | 대구 달성, 경남 사천, 경북 경주, 경북 영천, 충남 서산, 충북 진천 등         | 차세대 원자력   | 울산 동구, 충북 진천, 경남 창원, 부산 기장군, 충남 홍성, 부산 강서구 등           |
| 바이오/푸드테크  | 전남 여수, 경북 김천, <b>경북 구미</b> , 울산 남구, 강원 원주, 경기 화성 등 | 이차전지      | 울산 울주, 충북 충주, 충북 청주, 대구 달성, <b>경북 구미</b> , 전북 완주 등     |
| 첨단반도체     | 경기 이천, 경기 화성, 경기 평택, 충남 아산, 경기 안성, 충남 천안 등         | ICT지식 서비스 | 서울 금천, 경기 성남, 경기 과천, 서울 구로, 서울 송파, 서울 강남, 서울 성동 등      |

5)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상의 12개 산업으로 정의하였고, 국가데이터처의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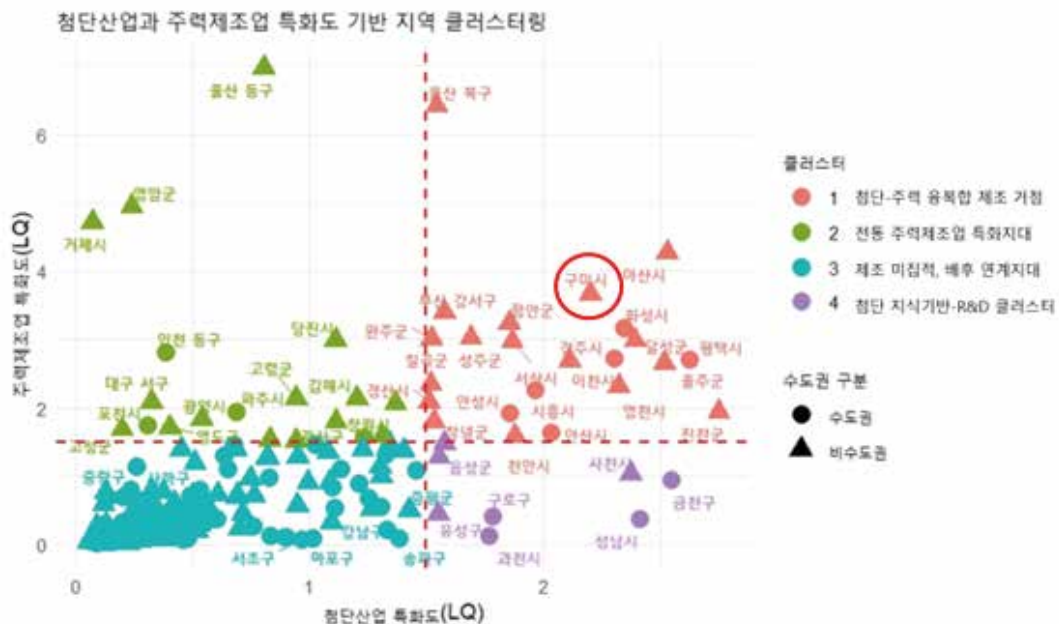
6)  $LQ = \frac{(L_{ij}/L_j)}{(Q_i/Q)}$ ,  $L_{ij}$  지역 i산업 종사자 수,  $L_i$  i지역 총 종사자수,  $Q_i$  i산업 총 종사자수,  $Q$  전국 총 종사자 수

## 주력제조업·첨단산업 특화도 기반의 지역 특성 유형화

☑ (지역 특성 유형화) 전국 229개 시군구 대상으로 첨단산업(12개 포괄)과 주력제조업(11개 포괄) 특화도(LQ=1.5) 변수를 기반으로 **4개 군집 식별**

- ① 첨단·주력 융복합 제조거점, ② 전통 주력제조업 특화지대, ③ 제조 미집적, 배후 연계지대, ④ 첨단 지식기반·R&D 클러스터
- 구미시는 첨단산업과 주력제조업의 특화가 상대적으로 모두 높은 '첨단·주력 융복합 제조거점' 클러스터에 해당

< 첨단산업 & 주력제조업 특화도 기반의 지역 특성 유형화 결과: 229개 시군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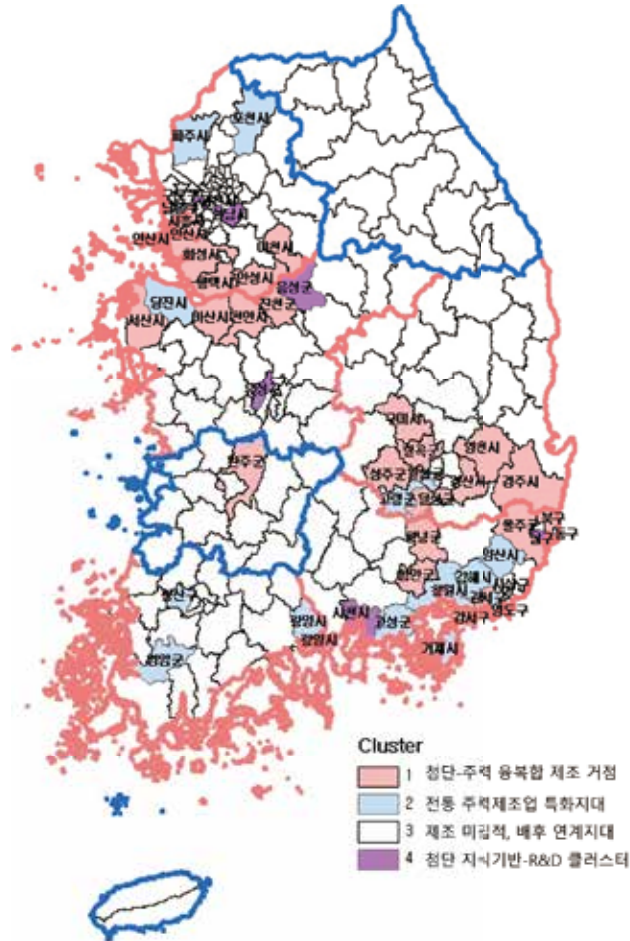


\* 주: 각 축의 교차점은 LQ = 1.5를 기준으로 설정

☑ (클러스터 공간 분포와 특성) 경기 남부(화성, 평택, 이천 등)에서 충청권(천안, 아산, 음성 등)에 이어지는 축으로 CL1과 CL4가 연담화된 반면, 비수도권 주력제조업 벨트(CL1, CL2)는 양극화 분리

- 경기 남부·충청권의 첨단·주력 융복합 벨트는 앞선 '청년·총인구 집중' 축과 공간적으로 일치, 즉 첨단·주력산업의 공동 집적과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인구를 블랙홀처럼 흡수하는 공간적 순환구조 구축
- 반면 대경(구미 포함)·동남권 주요 클러스터(산업 기반) 식별지는 '총인구·청년인구 기반 유형화' 결과의 청년·인구 동반 이탈 또는 정체 지역에 해당

< 첨단산업 & 주력제조업 특화도 기반 클러스터링 결과 지도화: 229개 시군구 >



\* 주: 푸른색 실선은 3특 지역을, 붉은색 실선은 5극 지역을 의미

< 첨단산업 & 주력제조업 특화도 기반 지역 특성 유형화 세부 결과: 229개 시군구 >

| Cluster                  | 광역지자체(개)                 | 기초지자체                       |
|--------------------------|--------------------------|-----------------------------|
| 첨단·주력 융복합 제조 거점<br>(CL1) | 경기(6)                    | 평택, 안산, 시흥, 이천, 안성, 화성      |
|                          | 대구(1) / 경북(6)            | 달성 /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성주, 칠곡 |
|                          | 부산(1) / 울산(2) /<br>경남(2) | 강서 / 북구, 울주 / 함안, 창녕        |
|                          | 전북(1)                    | 완주                          |
|                          | 충남(3) / 충북(1)            | 천안, 아산, 서산 / 진천             |
| 전통 주력제조업 특화지대<br>(CL2)   | 경기(2) / 인천(2)            | 파주, 포천 / 동구, 남동구            |
|                          | 경남(5)                    | 김해, 거제, 양산, 창원, 고성          |
|                          | 부산(2) / 울산(1)            | 영도, 사상 / 동구                 |
|                          | 대구(2) / 경북(1)            | 서구, 달서 / 고령                 |
|                          | 전남(2) / 광주(1)            | 광양, 영암 / 광산                 |
|                          | 충남(1)                    | 당진                          |

| Cluster                   | 광역지자체(개) | 기초지자체          |
|---------------------------|----------|----------------|
| 제조 미집적·배후 연계지대<br>(CL3)   | 강원(18)   | 춘천, 원주, 강릉 등   |
|                           | 경기(21)   | 수원, 의정부, 안양 등  |
|                           | 경남(10)   | 진주, 통영, 밀양 등   |
|                           | 경북(15)   | 김천, 안동, 영주 등   |
|                           | 광주(4)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
|                           | 대구(6)    | 동구, 남구, 북구 등   |
|                           | 대전(4)    | 동구, 중구, 서구 등   |
|                           | 부산(13)   | 동구, 부산진, 동래구 등 |
|                           | 서울(23)   | 종로, 중구, 용산구 등  |
|                           | 세종(1)    | 세종             |
|                           | 울산(1)    | 중구             |
|                           | 인천(8)    | 중구, 연수구, 부평구 등 |
|                           | 전남(20)   | 목포, 나주, 담양 등   |
|                           | 전북(13)   | 전주, 군산, 익산 등   |
|                           | 제주(2)    | 제주, 서귀포        |
|                           | 충남(11)   | 공주, 보령, 논산 등   |
|                           | 충북(9)    | 충주, 제천, 보은 등   |
| 첨단 지식기반·R&D 클러스터<br>(CL4) | 경기(2)    | 성남, 과천         |
|                           | 경남(1)    | 사천             |
|                           | 대전(1)    | 유성             |
|                           | 서울(2)    | 구로, 금천         |
|                           | 울산(1)    | 남구             |
|                           | 충북(1)    | 음성             |

## 05 >> 5극 3특 정책과 연계한 구미시의 대응 방향

### 📐 구미시의 구조적 특성

-  구미시는 인구 측면에서는 '청년·인구 동반 이탈지역', 산업 측면에서는 '첨단·주력 산업 융복합 제조거점'의 특성을 동시에 보유함
  -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총인구와 청년인구의 점유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구미시는 두 지표가 함께 하락하는 지역으로 분류됨
  - 반면 산업구조 분석에서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주력제조업과 첨단 방위, 바이오·푸드테크,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특화도가 높게 나타남.
-  이는 구미의 산업기반이 청년 일자리와 인구 유입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산업-인구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구미시의 정책목표는 산업기반의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연구·기술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가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두어야 함

## 5극3특 체계에서 구미시의 역할

- ✔ 5극3특 정책은 개별 지자체의 사업 확대보다 권역 내 도시별 산업·연구·인재 기능을 연계하여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 구미시는 국가산업단지와 전자·정보통신 제조기반을 활용하여 대경권의 '첨단제조·실증·양산 거점'으로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대구의 연구·교육·서비스 기능, 포항의 소재·연구개발 기반, 경주의 미래모빌리티 기반을 구미의 제조·실증 역량과 연결해야 함
  - 구미는 대경권에서 개발된 기술을 실제 제조현장에 적용하고 실증·사업화·양산으로 연결하는 산업혁신 거점으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핵심 추진과제

### ① 피지컬 AI·휴머노이드 로봇산업 거점화

- ✔ 삼성의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체계, 로봇 데이터 팩토리 및 AI 데이터센터 구축계획은 구미 산업구조 전환의 중요한 계기임
  - 구미의 전자·반도체·기계·방위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감속기, 액추에이터, 센서, 제어기 및 로봇용 반도체 등 핵심부품의 기술개발과 제조현장 실증을 강화해야 함
  - 대기업 투자가 지역기업의 성장으로 확산되도록 대기업-지역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R&D, 시험·인증, 실증 및 구매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구미는 로봇 완제품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핵심부품 개발부터 데이터 학습, 현장실증 및 양산이 연계되는 '로봇 제조·실증 허브'를 지향해야 함

### ② 제조 AX와 청년인재·정주정책의 연계

- ✔ 제조 AX와 로봇산업 육성을 청년이 선호하는 연구개발, 설계, AI·소프트웨어, 제조데이터 및 시스템 통합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함
  - 지역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산업수요 기반 교육과정과 인턴십을 운영하고, 교육·취업-장기근속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함께 주거, 교통, 문화·여가 및 커뮤니티 기능을 확충하여 청년 연구·기술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③ 대경권 초광역 산업연계 강화

- ✓ 대경권 내 지역별 강점을 활용하여 연구개발-부품-소재-실증-양산으로 이어지는 산업분업체계를 구축해야 함
  - 구미는 대구·포항·경주 등에서 개발된 기술과 부품을 제조현장에서 검증하고 양산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과 대전권의 AI·로봇 원천기술도 구미의 제조·실증 기반과 연결하여 기술의 지역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해야 함

### ☐ 단계별 실행방안

- ✓ 1단계에서는 지역기업의 로봇 기술역량과 공급망 참여 가능성을 조사하고, 기존 연구·실증시설을 연계하여 제조로봇 선도 실증과제를 추진함
- ✓ 2단계에서는 대기업과 지역기업 간 공동 R&D, 핵심부품 개발, 시험·인증 및 구매연계를 확대하고, 지역대학의 로봇·AI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정주지원을 병행함
- ✓ 3단계에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전반으로 로봇과 제조 AX를 확산하고, 구미를 대경권 및 국가 차원의 피지컬 AI·로봇 제조혁신 거점으로 육성함

### ☐ 종합 시사점

- ✓ 구미시의 핵심 과제는 새로운 산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강한 제조기반을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청년 정착으로 연결하는 것임
- ✓ 삼성의 로봇 관련 투자와 5극3특 정책을 연계하여 구미를 대경권의 첨단제조·로봇 실증거점으로 육성하고, 그 성과가 지역기업의 공급망 참여와 청년 일자리로 확산 되도록 해야 함
- ✓ 궁극적으로 구미시는 생산 중심 산업도시에서 기술·기업·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피지컬 AI·로봇 제조혁신도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1.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연앙인구」.
2.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
3. 교육부(202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
4. 교육부(2025). 「2025~2029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
5. 관계부처 합동(2024).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한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2024~2028)」.
6.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2025).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
7. 산업통상자원부(2025).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8. 산업통상자원부(2026). 「산업 R&D 혁신방안」.
9. 이제야(2024). 「로봇산업 트렌드 및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시사점」, 『GERI 산업 이슈 브리프』 2024년 제1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연구소.
10. 이제야 · 최은빈(2024). 「구미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 대응방안」, 『구미 현안분석 Brief』 2024년 9월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11. 이제야(2025). 「구미형 청년친화형 연구타운 조성방안」,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 정책기획연구소.『구미 현안분석 Brief』 2025년 12월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 정책기획연구소.
12. 이제야(2026). 「구미형 첨단제조 액셀러레이터 구축의 필요성 및 정책제언」, 『구미 현안분석 Brief』 2026년 6월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1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24).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24~2026: 지능형로봇」.
14.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15. 한국산업단지공단. 「문화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자료.
16.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사업자료.
17.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18. 삼성전자. 「삼성, 미래 성장 위해 영남에 60조원 투자 계획」, 삼성전자 뉴스룸, 2026. 7. 3.

# 02

---

##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가 구미시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동현 선임연구원(kdh22@geri.re.kr / 054-479-2267)

#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가 구미시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 ◆ 최근 중동전쟁 확산과 주요 경제지표 변동은 원자재 수급 차질, 물류비 상승 등 지역 기업들의 경영에 충격 확산
- ✓ 이러한 대외경제변수 악화는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구미산단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
- ✓ 이에 중동전쟁 장기화와 최근 주요 경제지표 동향이 구미산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구미시 차원의 주력산업별 대응방안을 제시

## 01 >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 1 중동전쟁 장기화 및 확산 양상

- ✓ '26년 2월 말 전쟁 발발, 3월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양국 간 휴전과 교전을 반복하며 전선이 인근 국가로 확대
- 중동 주요국의 에너지, 항만 인프라에 피해를 주고, 원자재 수급 차질, 에너지·물류비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글로벌 경기침체 유발

< 중동전쟁 추진 경과 요약 >

| 시기 | 단계              | 추진 경과                                                                                                                                                                                                       |
|----|-----------------|-------------------------------------------------------------------------------------------------------------------------------------------------------------------------------------------------------------|
| 2월 | 개전/지휘부 타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트럼프 '에픽 퓨리' 작전 명령, 미·이스라엘 대이란 선제 공습. 하메네이·라리자니 등 수뇌부 사망(2/27)</li> <li>이란, 이스라엘·미군기지에 보복 타격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2/28)</li> </ul>                                        |
| 3월 | 전면 확산/다전선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군 "이란 정권 안보기구 해체" 지시(3/1)</li> <li>이란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선출(3/9)</li> <li>인근국가 참전 확산 (레바논 전쟁 개전(3/2), 후티 반군 참전(3/28))</li> <li>트럼프 2주 휴전 (호르무즈 재개방 조건, 4/7)</li> </ul> |
| 4월 | 1차 휴전 → 결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스라엘-레바논 10일 휴전(4/16)</li> <li>미국 호르무즈 해상 봉쇄 선포(4/20)</li> </ul>                                                                                                     |
| 5월 | 해상 봉쇄/교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자유 작전(Project Freedom)' 호르무즈 통행 시도(5/4)</li> <li>이스라엘-레바논 휴전 3주 연장(5/23)</li> <li>미·이란 광범위 평화협정 임박 보도(5/24, 월말 합의 직전까지 진전)</li> </ul>                             |
| 6월 | 협상 재개 → 양해각서 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란 평화협상 중단 선언(6/1)</li> <li>이스라엘-레바논 미 중재 합의(6/3, 헤즈볼라 거부)</li> <li>미-이란 간 중전 프레임워크, 해상봉쇄 해제 양해각서 서명(6/17)</li> <li>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6/19)</li> </ul>                    |

| 시기 | 단계              | 추진 경과                                                                                                                                                               |
|----|-----------------|---------------------------------------------------------------------------------------------------------------------------------------------------------------------|
| 7월 | 양해각서 파기/<br>재확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럼프 양해각서 “종료” 선언, 전쟁 재개(7/8)</li> <li>• 이스라엘 남부 레바논 시범구역 철수 합의(7/15)</li> <li>• 후티 홍해 공격 재개, 사우디 해상 봉쇄 선언(7/22)</li> </ul> |
| 8월 | 경제 제재전/<br>교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이란 60일 시한 연장 거부 → 확전 국면(8/18)</li> <li>• 트럼프 ‘경제적 D-day’ 대이란 제재(8/20), ‘경제적 추방 작전’ 실시(8/24)</li> </ul>                   |
| 9월 | 소모전/<br>최대 분기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군 대이란 공습, 이란 최대 규모(59발 이상) 보복(9/1~2)</li> <li>• 시리아-이스라엘 안보협정 결렬(9/3)</li> <li>• 후티반군 예멘 서부 항구도시 모카항 점령(9/10)</li> </ul>  |

\* 출처 : TIME, 『From Overnight Airstrikes to Peace Talks: A Timeline of the U.S.-Iran War』, 2026.6.22., 연합뉴스, 『미·이란, 2주간 ‘휴전·호르무즈 개방’ 합의』, 2026.4.8., 뉴시스, 『‘60일 휴전’ 물고 뒀지만…핵·제재완화 협상 난항 [이란전 90일①]』, 2026. 5.27., 한국일보, 『‘호르무즈 말고 트럼프 해협’ 지도 올린 트럼프』, 2026.9.26. 종합 재정리.

## 2 유가 및 해상운임

- ✓ (두바이유 가격)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공급 차질로 '26년 2월 평균 68.4달러에서 3월 128.5달러로 87.9% 급상승, 이후 하락하다 8월 재반등
- 유가 상승으로 물류비용 증가, 생산원가 상승 및 수익성 악화

-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KCCI 월평균 컨테이너 해상운임 지수는 '26년 2월 1,600.7pt에서 9월 4,717.7pt까지 194.7% 상승
- 원자재 운송비 상승으로 기업 수출입 물류 부담 확대

\* KCCI(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 한국해양진흥공사 발표, 부산항 출발 컨테이너 운임 기준 총 13개 노선의 운임 변화를 나타내는 종합 지수

< '26년 월평균 유가 및 해상운임 동향 >

(단위 : 달러/배럴당, pt)



\* 출처 : 한국은행,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컨테이너선운임지수』, 재구성.

## 3 수입물가지수

- ✓ (나프타) 중동전쟁 직전 161.2에서 전쟁 직후 '26년 4월 274.3으로 급등, 6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다 7월부터 다시 상승

\* 수입물가지수 : 국내로 들어오는 상품과 원자재의 평균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 (2020년=100)

- ✓ (금속 및 비금속광물) 중동전쟁 직전 138.4에서 전쟁이 본격화된 '26년 5월 145.8로 급등, 이후 지속 상승하여 8월 최고치를 경신
-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조달비용 및 생산원가 부담 확대

### < '26년 수입물가지수 동향 >

(단위 : 2020년 = 100, 달러기준)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수입물가지수」, 재구성.

## 4 원·달러 환율

✓ 중동전쟁 발발 직후인 '26년 3월 미 달러화 강세와 국제유가 급등으로 1,520원대 까지 상승 후 9월 외환수급 개선 등으로 1,350원대까지 하락

- (환율 상승 시) 수입 원자재 및 부품가격과 물류비 상승에 따른 지역 제조기업의 원가 부담 확대

\* 구미국가산단의 주요 업종인 전기전자 및 기계 제조기업 중 수입 전자부품, 소재, 생산설비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조달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 (환율 하락 시) 달러 매출의 원화 환산액 감소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원화 기준 매출액 감소 우려

\* 전기전자 및 기계 수출기업은 수출단가 경쟁 심화와 원화 환산 매출 감소로 주주 및 수익성 저하 가능

## 5 금리

✓ 한국은행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승하자 기준 금리를 '26년 7월과 8월 각각 0.25%p 인상, 3.0%로 상향

- 구미시 기업 대출금 잔액은 '26년 6월 8조 6,314억원으로, 기준금리 인상분의 대출 금리 반영 시, 이자비용 증가로 기업부담 확대 우려

\* '26년 6월 기준 구미시 대기업 대출 1조 1,209억원, 중소기업 대출 7조 5,105억원(운전자금 4조 2,495억원, 시설자금 3조 2,610억원)

### < '26년 원·달러 환율 및 기준금리 동향 >

(단위 : 원, %)



\* 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 「월평균 매매기준율」,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6년 9월)」, 재구성.

## 6 관 세

✔ 트럼프 정부는 '25년 이후 다양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구미시 주력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반도체 등 Section 232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미시 주력산업에 부정적 영향 우려

\* 관세정책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상호관세' 트랙과 Section 232(무역확장법) 기반 '품목별 관세' 트랙으로 구분

\* Section 232 : 특정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 시, 대통령이 관세부과나 수입제한 조치 가능 : 관세율 상한 없고, 특정국가만 예외로 두거나 세율 협상 가능

\* '26년 2월 20일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한·무효로 판결하면서 상호관세 트랙은 붕괴, Section 122(15%, 한시)로 대체

< 구미시 주력산업별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동향 >

| 주력산업    | 발표시기                 | 주요 관세정책 및 영향                                                                                   |
|---------|----------------------|------------------------------------------------------------------------------------------------|
| 반도체     | '25.04.16            | · 반도체·반도체 제조장비 대상 Section 232 조사 개시                                                            |
|         | '26.01.15            | · 첨단 컴퓨팅용 칩 및 파생품에 25% 관세 발효                                                                   |
|         | '26.02.20            | · IEEPA 상호관세 위한 판결 → 반도체 232관세는 무관하게 유지                                                        |
|         | '26.07.1~            | · 한·일·EU 무역합의 발효로 15%로 상한 인하                                                                   |
| 방 산     | '25.04.15            | · 중요광물(희토류 등 방산 필수소재) Section 232 조사 개시                                                        |
|         | '25.06.01            | · 무인기(UAS) 부품 Section 232 조사 개시                                                                |
|         | '26.01.14            | · 중요광물 즉시 관세 대신 협상 트랙 채택, 협상 결렬 시 관세부과권 유보                                                     |
|         | '26.09.02            | · 드론 관세 시행 : 대형기체 100%, 열화상 미탐재 소형기 25%                                                        |
|         | 상 시                  | · 철강·알루미늄·구리 50%가 방산장비 부품 원가에 반영                                                               |
| 이차전지    | 기존~'26 (유지·강화)       | · Section 301 대중 관세 : EV 100%, 비리튬이온 배터리부품 25%, 리튬이온 배터리 '26년 25%로 인상, 천연흑연·영구자석 0%→25% ('26년) |
|         | '26.01.14            | · 주요 광물(PCMDP, 리튬·니켈 등) Section 232 (즉시 관세 아님, 협상 개시)                                          |
|         | '25년 하반기             | · 중국 흑연 수출허가제 강화 + 미국 대중 관세 → 중국산흑연 수입기업 어려움                                                   |
|         | 상 시                  | · 철강·알루미늄 50%가 배터리 케이스·모듈 부재료 원가에 영향                                                           |
| 전기전자    | '25.04~'26.02        | · IEEPA 상호관세(10~46%, 국가별 차등) 적용 - 일반 전자제품 전반                                                   |
|         | '25.03~'26.04        | · 철강·알루미늄·구리 25%→50% : 전자기기 하우징·부품 소재                                                          |
|         | '26.02.20            | · IEEPA 관세 대법원 무효화 → Section 122 전세계 일률 15% ('26.7.24 만료)                                      |
|         | '26.01.15            | · 반도체(핵심부품) 25% → 한국 등 15% 상한                                                                  |
|         | '26.07.24~           | · Section 122 만료 후 Section 301 등 대체 예정 (불확실성 지속)                                               |
| 무선통신 기기 | '25.04.11.           | · 스마트폰·라우터/스위치 등 데이터전송장비, IEEPA 상호관세 면제 목록 포함                                                  |
|         | '25.04.16            | · 반도체 Section 232 조사 개시 (반도체 부품 향후 리쇼어링 관세후보로 지목)                                              |
|         | 상 시                  | · 중국산 스마트폰·통신장비는 20%(펜타닐 관련) 관세 지속 부담                                                          |
|         | '26.01.15            | · 특정 반도체 HTS는 Section 301로 최대 50%까지 별도 부과                                                      |
|         | '26.01.15            | · 반도체 232관세는 첨단 컴퓨팅칩에 한정 → 일반 통신기기용 반도체는 제외                                                    |
|         | '26.02.20~24         | · IEEPA 무효화 후 Section 122 대체에도 스마트폰·통신장비는 면제 유지                                                |
| 로봇/ 기계  | '26.07.24~           | · Section 122 만료, Section 301(10~12.5%, 80개국) 대체 (완제품 면제 여부 불확실)                               |
|         | '25.09.02            | · 로봇·산업기계 Section 232 조사 개시                                                                    |
|         | '26.06.01 (06.08 발효) | · 잠정 완화 조치: 농기계·일부 산업장비 25%→15% 인하,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85% ↑ 함유 외국제 자본재는 10% 특례(2027.12.31까지 한시)      |
|         | '26.09 현재            | · 로봇·산업기계 최종 관세 미발표 (법정시한('26.5) 경과, 연내발표 전망)                                                  |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미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무효 판결」, 2026.02.22, Yoon & Yang LLC, 「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무효 판결」, 2026.02.23, Covington & Burling, 「Case Current and Forthcoming Section 232 Actions by the Trump Administration」, 2026.04.23, 종합 재정리.

## 02 >> 구미시 주력산업 피해 현황

### 1 구미시 지역기업 피해 현황

#### ① (피해실태 1차 설문조사 실시) 중동 사태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 실태 설문조사 실시 (3.13~17)

##### < 1차 설문조사 개요 >

- ✓ (설문내용) 중동 사태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실태 및 기업지원 수요조사
- ✓ (조사대상/응답) 구미시 소재 기업 3,524개사, 21개사 응답
- ✓ (조사기간) 2026년 3월 13일(금) ~ 17일(화) (3일간)
- ✓ (조사방법) 이메일 배포 및 전화 조사 (참여요청 및 세부내용 확인)
- ✓ (조사기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 - (피해현황) 원자재 가격상승, 유가 및 물류비 상승, 환리스크 발생

\* (원자재 가격상승) 가장 큰 피해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 중동전쟁에 따른 산업별 피해실태 조사 결과 >

| 구 분       | 응답기업 소속 산업          | 피해 현황                             |
|-----------|---------------------|-----------------------------------|
| 원자재 가격상승  | 반도체, 전자             | · 화학 원자재 수급 어려움 및 부품 가격 급등        |
|           | 방산                  | · 방산 관련 소재 수급 차질                  |
|           | 석유화학                | · 메탄올 가격 급상승 및 원자재 수급 불가          |
|           | 금속, 건설              | · 철, 비철금속 가격 상승과 환율변동에 따른 원가부담 가중 |
| 유가·물류비 상승 | 전자, 방산, 화학, 기계, 자동차 | · 유가 및 운송비 상승으로 물류비 증가 및 운송 차질    |
| 환리스크 발생   | 반도체, 전자, 방산, 기계     | · 환율 변동성 확대에 원자재 수입 부담, 달러 확보 어려움 |

\* 출처 : 중동 사태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 실태 설문조사 응답결과 재정리

- (건의사항) 대체공급처 발굴, 정책자금 지원, 환리스크 해소, 금융지원, 수출입 대체 시장 발굴 및 판로개척, 정기적 정보제공 필요

#### ② (피해실태 2차 설문조사 실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실태 및 기업지원 수요조사 실시 (4.9~14)

##### < 2차 설문조사 개요 >

- ✓ (설문내용)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실태 및 기업지원 수요조사
- ✓ (조사대상/응답) 경상북도수출기업협의회 회원기업 220개사 / 18개사 응답
- ✓ (조사기간) 2026년 4월 9일(목) ~ 14일(화) (4일간)
- ✓ (조사방법) 이메일 배포 및 전화 조사 (참여요청 및 세부내용 확인)
- ✓ (조사기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 (피해현황) 원·부자재 가격 상승, 생산·운송 차질, 해외매출 감소, 수출계약 보류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산업별 피해실태 조사 결과 >

| 구분       | 응답기업 소속산업 | 피해 현황                                      |
|----------|-----------|--------------------------------------------|
| 원자재 가격상승 | 섬유, 화학    | • 에탄올, 나프타 원부자재, 포장재 가격 상승, 수급 어려움         |
|          | 전자, 반도체   | • 전자기업 생산공정 부재료 및 포장재, 반도체기업 퀵츠가공 절삭유 가격상승 |
| 생산 차질    | 섬유, 화학    | • PP 원자재 수급 어려움으로 생산 차질                    |
|          | 기계        | • 나프타 수급 어려움으로 생산 차질 및 제조원가 상승             |
|          | 식품        | • PET병, PE용기, 비닐 등 부자재 수급 차질로 생산 중단        |
| 운송 차질    | 식품        |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식품기업의 선박스케줄 취소               |
| 해외 매출 감소 | 전자        | • 전자기업의 해외 매출 감소, 부도 사태 예상                 |
| 수출계약 보류  | 식품        | • 선박스케줄 취소로 식품기업의 수출 계약 보류                 |

\* 출처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실태 및 기업지원 수요조사 응답결과 재정리

- (건의사항)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 지원, 수출입 비용 지원, 금융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필요

③ (BSI 조사 실시) 상공회의소의 5월 「'26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에 따르면 구미시 BSI 전망치(76)는 전 분기(89) 대비 13포인트 하락

- (주요 원인) 2년 연속 기준치를 하회한 수치로,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
- (업종별 영향) 전기전자(83), 기계금속(82), 섬유화학(58), 기타(79) 모두 기준치를 하회, 특히 섬유 화학이 전 분기 대비 가장 큰 폭 하락
- \* (섬유화학) '26년 3분기 BSI 지수 전망치(58)는 전 분기(100) 대비 42p 하락

< 구미시 제조업 BSI 추이 >



\* 출처 : 구미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26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2026.06.30. 재구성.

- ('26년 하반기 영향) 응답기업의 54.0%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26년 하반기 경영 계획에 변동이 있다고 응답

\* 가격 및 납품단가 인상 요청(31.0%), 원부자재 대체 수입처 발굴(27.0%), 생산량 및 가동률 조정 (24.0%)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복수응답)

- (지원 요청사항)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 정부의 지자체 재정지원 강화, 기업 애로 해결 체계 구축, 지역 특화산업 거점 조성 필요

\* 응답 기업의 63.0%가 세제 감면, 보조금 등 지자체 재정지원 강화를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택 (복수응답)

## 03 >> 구미시 주력산업별 영향

### 1 반도체

#### ✓ '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AI 인프라 투자와 메모리 가격 급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 성장이 예상됨

- 주요 시장조사 기관들은 '27년까지 DRAM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반도체 업체들도 AI 수요확대에 따른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

\* Gartner는 DRAM 연간 가격이 2026년 +125%, NAND가 +234% 상승하고, 가격 하락은 '27년 말 이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산업연구원은 '26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약 45.7%의 비중을 차지한 반도체산업이 101.9% 증가, 하반기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9.6% 증가 전망

#### ✓ (중동전쟁 영향은 제한적) 최근 반도체산업 투자는 개인보다는 기업의 비중이 높으며, AI 투자는 중동전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

- 반도체 산업은 중동지역 공급망 의존도가 낮아 구미시 기업 영향 제한적

\* 중동전쟁 여파와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부정적 우려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경쟁과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반도체 가격상승이 전체 수출 확대를 견인

### 2 방산

#### ✓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 러-우 전쟁과 중동전쟁을 거치며 전세기는 '단기간의 전쟁'이 아닌 '항구적 재무장' 국면에 진입

- (글로벌 군비 확장) '25년 전세계 군사비는 2조 8,870억 달러로 11년 연속 증가, 세계 GDP 대비 방위비 비중 2.5%로 '09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6년 4월 발표

\* NATO는 2025년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GDP의 5%(핵심 국방 3.5% + 인프라·보안 1.5%) 목표를 채택

#### ✓ (중동전쟁에 따른 지역기업 호실적 전망) 구미시는 천궁-II MFR(한화시스템)과 요격 미사일(LIG D&A)이 동시에 생산되는 국내 유일의 도시

\* MFR(Multi-Function Radar) : 하나의 안테나로 표적의 탐지·추적·식별부터 유도탄 교전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3차원 위상배열 레이더

- (한화시스템) '23년 이후 폴란드 K2전차 사격통제시스템, 이라크 M-SAM MFR, 국내 L-SAM 다기능레이더 등 국내외 수주 확보

\* '23년 12월(2,574억원) 및 '25년 12월(2,031억원, 재공급) 폴란드 K2전차 사격통제시스템, '25년 10월 이라크 M-SAM MFR양산(8,592억원) 등

- (LIG D&A) '22년 이후 중동 3개국\* 대상 12조 6천억원 규모 천궁-Ⅱ 수주로 계약 물량 생산 중, 이는 지역 방산업체에 호실적으로 작용 예정

\* '22년 1월 UAE 약 35억 달러(4조원 대), 2023년 11월 약 32억 달러(약 4조 2,528억원), '24년 9월 이라크 약 28억 달러(약 3조 7천억원) 계약

\* 또한, '26년 2월 미국-이란전쟁에서 UAE 천궁-Ⅱ가 96% 요격률을 기록하면서, 카타르·쿠웨이트 등 인근국가 추가계약 기대감 상승

### 3 이차전지

✓ (중장기 성장 전망)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확대와 유럽 전기차 판매 증가가 전기차와 ESS 수요확대로 이어질 전망

\* 산업연구원은 '26년 이차전지 산업이 전년대비 수출 6.8%, 생산 6.9%, 내수 10.8% 증가 전망

\* 전기차 수요 자체는 여전히 부진하며, '26년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16% 감소할 전망, 한국산 배터리의 글로벌 점유율도 19%에서 16%로 감소할 전망

✓ (중국 주도 공급구조 심화) 북미 시장 내 국내 기업의 생산 비중 확대, 유럽시장 내 중국기업 생산능력 증설과 LFP 배터리 경쟁력 강화

\*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 가격 상승과 ESS·전기차 수요 회복으로 제품단가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중국산 저가 LFP 배터리 확대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

✓ (중동전쟁으로 공급망 불안정) 고유가 지속 시 전기차 및 ESS 수요 확대 기대, 나프타 공급 불안으로 분리막용 폴리에틸렌 수급 리스크 증가

\* 중동시장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4.3%에 불과하나, 고유가 지속 시 배터리 수요 확대로 수출·생산에 일부 긍정 효과 예상

\* 나프타 공급망 충격 확대 시 분리막 수급에 악영향, 배터리 생산 차질 가능성 존재

### 4 로봇

✓ (산업용 로봇 운영 확대) '24년 542,076대에서 '25년 621,000대(+15% 증가)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 누적 운영 대수 500만대 돌파

\* IFR(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국제로봇연맹)은 이것이 7년 전의 2배 이상 수치로, '26년 655,000대(+9%), '29년 806,000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휴머노이드 로봇시장 태동) '25~'26년 출하량은 급증했으나, 산업 현장 실사용 사례는 제한적, 대부분은 중국 학술 연구 및 엔터테인먼트 용

\* Interact Analysis는 2030년까지 글로벌 휴머노이드 누적 10만 대 미만을 전망

✓ (피지컬AI 투자 확대) '26년 1분기 글로벌 로봇 및 피지컬AI 벤처투자는 492건(163억 달러)으로 사상 최대, 상반기 피지컬AI 벤처투자 474억 달러 기록

\* Deloitte는 「Tech Trends 2026」에서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피지컬AI가 물류 외 의료·식품, 에너지설비·도시인프라 점검분야로 확산 중이라고 보고

## 5 정보통신기기

✓ (글로벌 수요 증가) AI 디바이스 확산과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로 성장세이나, 전통 IT기기 수요 둔화가 일부 부담으로 작용

\*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및 폴더블폰의 글로벌 보급 확산으로 성장세가 예상되나, 메모리 등 핵심부품의 단가 상승으로 스마트폰 수요 위축 우려

✓ (아세안 중심 공급비중 확대) 스마트폰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 등으로 다변화되며 아세안 중심 공급비중 확대 전망

\* 한편 중국과의 프리미엄 및 폴더블폰 경쟁 심화 및 아세안 국가 생산 비중 확대로 국내 생산 정보통신기기의 단가 인하 압력 증가 전망

✓ (중동전쟁으로 협력업체 부담 증가) 전쟁 장기화 시 물류비 및 부품소재 원가 상승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중소 협력업체 부담 확대 전망

\* 수출 및 생산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물류비 상승 등 간접적 영향 우려

## 6 전자

✓ (수요 회복) 상반기 미국소비 둔화 및 관세영향을 극복하고, 하반기 기저효과와 인도,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 중심 수요 회복

\* '25년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인도, 중남미 등 신흥국의 생활가전 수요 여건 개선으로 '26년 하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1.5% 증가하나 연간 기준 5.1% 감소

✓ (단가 상승) AI, 친환경, 고효율 중심의 프리미엄 제품 확대, 반도체·물류비 상승, 미관세 영향 등 부품가격 상승으로 단가 상승 전망

\* 미국 관세, 물류비 및 반도체 가격상승 요인이 제품가격에 반영, LED/QLED TV 등 영상음향기기 시장에서 중국과 가격경쟁 심화로, 가격 하락세 지속 전망

✓ (해외 생산 확대) 글로벌 경쟁 심화와 미 관세대응을 위해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해외생산 확대와 현지화 전략 강화

\* 수익성이 낮은 생산거점의 구조조정 및 외주화도 확대될 전망

✓ (중동전쟁으로 원가 부담 증가)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물류비 상승과 일부 원부자재 가격 부담 등 간접 비용 요인 지속 전망

\*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중동시장 수출감소와 물류 재이전 비용 증가 예상, 석유화학 원료공급 차질 시 플라스틱 부품 수급 불안가능성 존재

## 7 기계

### ✓ (글로벌 수요 둔화) 유럽 및 중국 제조업 회복에도 미 관세 불확실성, 중동수요 급감,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상승으로 글로벌 설비투자 둔화 전망

- \* 원유·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해상운임 급등, 선박 부족 심화로 생산원가 및 물류비 부담이 확대되며 글로벌 수출 여건이 악화될 전망
- \* 미국 301조 조사 및 보호무역 강화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글로벌 설비투자 및 기계 수요 위축 요인으로 작용

### ✓ (내수 증가 전망) 설비투자의 완만한 회복과 건설투자 증가세 전환 등 주요 수요 부문의 개선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 전망

- \* 산업연구원은 '26년 상반기 국내 건설경기의 지속적 약세에도, 반도체·방산 등 제조업 경기 개선으로 전년동기 3.4% 증가 추정
- \* 산업연구원은 수출 감소폭은 축소(-8.4% → -1.0%)되나, 내수 증가세(+1.0%)가 소폭 둔화하며 생산은 전년대비 -0.4% 수준의 보합세 예상

### ✓ (수입 증가 전망) 수요산업 설비투자 수요회복과 자동화, 친환경 설비투자 지속으로 관련 완제품 및 부품 수입수요 확대 전망

- \* 산업연구원은 '26년 상반기에는 수요산업 설비투자의 점진적 회복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 추정, '26년 하반기 수입은 전년 대비 3.3% 증가 전망

### ✓ (중동전쟁으로 해외플랜트 수요 감소) 중동전쟁으로 해외플랜트 및 EPC\* 부문 수주 감소, 관련 기계 기자재의 수출 감소 예상

- \* EPC : Engineering(설계), Procurement(조달), Construction(시공)

## 04 >> 구미시 주력산업별 시사점 및 대응방안

### 1 반도체

✓ '26년 하반기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AI 반도체 수요 확대는 구미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수출에 직접적 호재이나, 리스크 관리 필요

- (미국 반도체 관세 대응) '26년 1월 반도체 25% 관세 발표, 2단계 적용 확대 시, 구미시 소부장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 부담 확대

- (Memflation의 대응)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비 AI수요(가전, IT기기) 위축 시, 구미시 반도체 수출에 간접적인 타격 예상

\* Memflation : Memory와 Inflation의 합성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이 스마트폰, PC 등 IT 기기 및 AI인프라 전반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현상

\* 산업부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 연계, 특정국가에 수입선이 집중된 원부자재의 신규 수입처 발굴 필요

### 2 방산

✓ 구미시는 핵심부품 공급 기업 대상 설비투자 자금 지원, 시험·인증 비용 지원, 생산 인력 공급 지원 필요

- (중장기 관점 지역기업 지원) 러-우, 중동전쟁 종전과 무관하게 유럽 재무장과 중동 국가 다층방어체계 구축은 다년도 사업임

\* 유럽 및 중동국가 대상 지속적 방산 시장 진입 및 생산체계 확대 필요

- (협력업체 생산역량 강화 지원) 수주 잔고가 충분한 상황에서 기업실적은 납품 속도가 중요, 이는 협력업체의 생산능력과 전문인력에 좌우

### 3 이차전지

✓ ESS 및 재활용 등 구미시가 강점을 가진 영역에 집중하고, 해외생산대체 리스크에 대비 필요

- (배터리 시험·평가·인증 인프라 보유) 소부장에서 재사용,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구미시의 가장 큰 차별화 영역

\*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수요확대형 배터리 테스트베드, BaaS 실증 기반 구축, AI기반 사용후 배터리 평가·재사용 지원 기반구축 사업 추진 중

\* 피엔티, 미래첨단소재, 토텍, 디에프에스, 지오에이 등 이차전지 제조·소재 기업의 투자가 지속, 5산단에는 배터리·첨단소재 분야 기업 입주 진행 중

- (해외생산 대체 리스크 대비) 소부장 기업의 미국, 유럽, 인도네시아 이전에 대비, 해외 공급망 확보, 현지 인증 대응, 서비스 수출 패키지화
- \* 셀 공장 소재지를 추적하여 구미시 협력사를 매칭, 국내 셀 3사의 해외 공장 위치와 구미 소재·장비 기업의 납품 이력을 연결하는 공급망맵 작성 필요
- \* 중소기업 대상 미국, 유럽, 인도네시아 현지 규격 인증 대응 지원 필요
- \* 장비 수출을 서비스와 연계, 장비판매 후 현지 설치·정비·교육을 패키지로 판매

#### 4 로봇

##### ✓ 최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삼성의 구미시 19조 투자, 대경권 핵심산업 추진과 연계한 집중 육성 필요

- (3대 메가프로젝트 내 로봇산업 포함) '첨단로봇 초혁신벨트(구미-포항-대구-창원)'를 중심으로 로봇산업 집중 육성 발표
- \*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발표」(26.7.3)
- (삼성전자·SDS 로봇 투자 발표) 구미시에 19조원 투자, 휴머노이드로봇 양산라인 구축,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 \* 기존 사업장을 AX기반의 AI Driven 팩토리로 전면개편 및 AI데이터센터 구축
- (대경권 핵심 산업) 지방시대위 및 산업부의 대경권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과기부 대경권 4극 3특\*\* 중점 기술분야에 로봇산업 포함
- \* (비전) 대경권을 '첨단 소재부품 및 AI 로봇 중심지'로 육성, (4대 성장엔진) 미래모빌리티, 로봇(첨단 AI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 \*\* (대경권 3대 중점기술) 로봇(지능형 서비스 로봇), 시스템반도체, 미래모빌리티

#### 5 정보통신기기/전자

##### ✓ 프리미엄 제품 확대에 대응한 고부가 부품 및모듈개발 지원, 해외신흥시장 판로 개척, 해외 생산확대 대응, 물류비 지원 필요

- (고부가 부품 및 모듈개발 지원) AI, 친환경, 고효율 프리미엄 제품 확대에 대응하여 고부가 부품 및 모듈로 포트폴리오 전환 지원
- (신흥시장 개척 지원) 하반기 수요 회복 지역이 인도, 동남아, 중남미이므로, 이들 시장 대상 해외 판로개척 지원 확대
- (아세안 국가 생산 비중 확대 대응) 스마트폰 및 PC 생산의 베트남, 인도 이동에 맞춰 구미 부품사의 현지 납품 경로 개척지원
- (물류비 부담 지원) 중기부, KOTRA 등 중앙부처 및 수출지원기관과 연계한 공동물류 및 긴급 물류바우처 지원 확대

< 중기부, 산업부 및 KOTRA 물류비 지원사업 >

| 부처/기관         | 지원사업명                      | 지원 내용                                                                                                                                                                                   |
|---------------|----------------------------|-----------------------------------------------------------------------------------------------------------------------------------------------------------------------------------------|
| 중기부           | 일반 물류바우처 사업                | · 글로벌 물류비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대상 국제 운송 비용 (해상·항공 운송료 등)을 지원                                                                                                                         |
|               |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지원 사업        | · 전자상거래(역직구) 방식으로 수출하는 기업 대상 지원<br>-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 민간 물류사를 통한 제품 보관, 포장, 출고, 배송비의 최대 70% (3천만원 한도) 지원<br>- (물류비 상시 할인): 중소기업 물량을 집적하여 EMS(우체국 국제특송) 정상가 대비 평균 60% 이상 저렴한 단가로 해외배송 이용 지원 |
|               | 중기부 수출바우처                  | · 마케팅 및 해외 진출 통합 바우처 내 국제운송(물류) 카테고리 포함<br>- 국제운송비 지원, 창고보관, 배송 등 종합 물류서비스 비용 정산 가능                                                                                                     |
| 산업부/<br>KOTRA |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 · 중소·중견기업 대상 현지 KOTRA 협력물류회사의 창고 공동 이용 지원<br>- 현지 창고보관료, 입출고 등 서비스 비용 및 최적의 물류 컨설팅 연계                                                                                                   |
|               | 중동분쟁 피해기업 쇼피/B2C 역직구 물류 지원 |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대체시장 개척 물류비 지원<br>- 글로벌 유통 플랫폼 '쇼피'의 현지 풀필먼트 센터 활용 비용, 현지 보관·포장·배송비, 현지 인증 및 통관 대행 비용 등 최대 2,400만원 지원                                                            |
|               | 산업부·코트라 수출바우처              | · KOTRA 수행 수출바우처에도 국제운송 서비스 선택 가능 (공급망 위기/중동 사태 등 대외리스크 시 '긴급지원바우처' 형태로 사용가능)                                                                                                           |

\* 출처 : 산업부·중기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매일경제, 「중기부,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참여기업 모집」, 2026.07.16., KOTRA, 「무역투자 24」, 홈페이지, 기계신문, 「2026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출물류 전 과정 지원」, 2025.12.15. CNC뉴스, 「코트라, 역직구 수출 물류로 중동 피해 기업을 위해 쇼피 통한 대체 시장 수출 지원」, 2026.09.28. 종합재구성.

## 6 기계

### ✓ 삼성의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라인 설비 참여, 방산 및 이차전지 등 성장 산업과 연계한 정밀기계 산업 활성화 필요

- (삼성 로봇 투자사업 연계) 삼성 휴머노이드 양산 라인, AI드리븐 팩토리 구축 시 정밀 기계·자동화 장비 발주에 구미시 기업 참여
- (방산 및 이차전지 설비 연계) 체계기업의 대규모 방산 설비투자와 이차전지 투자기업 등의 설비 및 장비 수요를 지역기업과 연결

\* LIG D&A는 '29년까지 총 3,700억원을 투자하여, 유도무기, 항공우주 무기체계의 연구, 제조, 성능시험을 아우르는 방산 전용 신규 생산기지를 구축 중

⇒ 중동전쟁 장기화와 최근 주요 경제지표 변화에 대응한 주력 산업별 선제적 산업육성 정책 마련 및 기업지원 확대 필요

## 참고자료

1.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미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무효 판결」, 2026.02.22.
2. 산업연구원,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2026.05.26.
3.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6.09.10.
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수입물가지수」, 「무역지수」. (<https://ecos.bok.or.kr/#/SearchStat>)
5.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 「컨테이너선운임지수」. (<https://www.kobc.or.kr/ebz/shippinginfo/timeseries/gridList.do?mld=0304000000>)
6.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 「월평균 매매기준율」. (<http://www.smbs.biz/ExRate/MonAvgStdExRate.jsp>)
7. 산업부·중기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sample/main>),
8. KOTRA, 「무역투자 24」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subList/41000022001?pmode=detail&nttSeq=28956>)
9. 구미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26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2026.06.30.
10.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중동사태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실태 설문조사 결과」, 2026.03.18.
11.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실태 및 기업지원 수요조사」, 2026.04.16.
12. 매일경제, 「중기부,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참여기업 모집」, 2026.07.16.
13. 기계신문, 「'2026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출물류 전 과정 지원」, 2025.12.15.
14. CNC뉴스, 「코트라, 역직구 수출 물류로 중동 피해기업을 위해 쇼피 통한 대체 시장 수출 지원」, 2026.09.28.
15. 연합뉴스, 「미·이란, 2주간 '휴전·호르무즈 개방' 합의」, 2026.04.08.
16. 뉴시스, 「'60일 휴전' 물고 텃지만...핵·제재완화 협상 난항 [이란전 90일④]」, 2026.05.27.
17. 한국일보, 「'호르무즈 말고 트럼프 해협' 지도 올린 트럼프」, 2026.09.26.
18. 동아일보, 「우크라 전쟁 장기화에...세계 군비지출 사상 최대치 기록」, 2026.04.27.
19. TIME, 「From Overnight Airstrikes to Peace Talks: A Timeline of the U.S.-Iran War」, 2026.06.22.
20.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IFR World Robotics 2026」, 2026.09.24., 「IFR World Robotics 2025」, 2025.09.25.
21. Deloitte, 「Tech Trends 2026」, 2025.12.10.
22. Yoon & Yang LLC, 「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무효 판결」, 2026.02.23.
23. Covington & Burling, 「Current and Forthcoming Section 232 Actions by the Trump Administration」, 2026.04.23.
24. Gartner, 「Gartner Forecasts Worldwide Semiconductor Revenue to Exceed \$1.3 Trillion in 2026」, 2026.04.08.

## | 연구진

최은빈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소장

오선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제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책임연구원

김동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장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수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수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선임연구원

「구미 현안분석 브리프」는 국가와 지역 산업·기술 정책, 지역혁신, 현안이슈 등 각종 동향과 이슈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결과를 정리한 발간물입니다.

본 발간물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으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발간물의 내용을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구미 현안분석 Brief

발간호수 : 2026년 9월호

발간물명 : 구미 현안분석 Brief

주 소 : (39171)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

문 의 : 구미정책기획연구소(054-479-2263)

